

보도설명자료

('18. 5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철강서 화학까지...트럼프, 또 무차별 폭격”

('18 . 5. 2, 서울경제 인터넷판 등)

1. 기사내용

□ 미국은 한국산 PET 레진에 대해 101% 관세 폭탄 부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美 상무부(DOC)는 '18.5.1(현지시간) 한국산 PET레진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음

- 금번 예비판정에서 우리기업은 8.81~101.41%의 덤핑 마진을 판정을 받았으며,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, 인도네시아, 대만, 파키스탄이 함께 피소됨

* 업체별 덤핑 마진율 : SK케미칼(8.81%), 롯데케미칼(101.41%), TK케미칼(101.41%)

* (국가별 덤핑 마진율) 브라질 : 24.09~226.91%, 인도네시아 : 13.16%, 대만 : 9.02~11.89%, 파키스탄 : 7.75%

□ SK케미칼은 금번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여 비교적 낮은 덤핑 마진율(8.81%)을 받았으며, 롯데케미칼·TK케미칼은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대응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별도 대응하지 않아 불리한 가용정보(AFA)를 적용 받음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음

- 한편, 롯데케미칼·TK케미칼은 이미 일본 등으로 수출선 전환이 완료되어 금번 판정에 따른 피해는 없다는 입장임

□ 앞으로도 정부는 개별 반덤핑건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익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윤성혁 과장(044-203-4280)
통상법무기획과 조수정 과장(044-203-4550)